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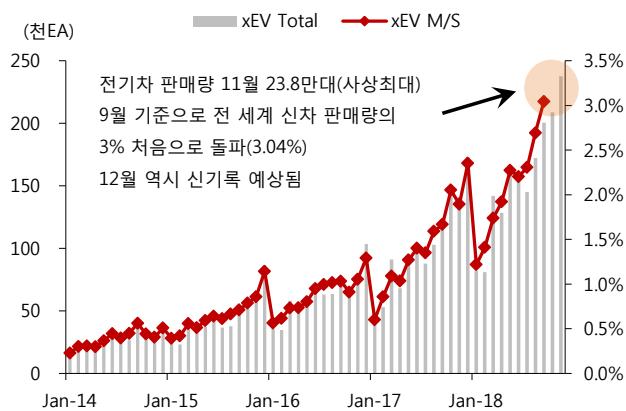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2018년 세계 전기차 시장 간략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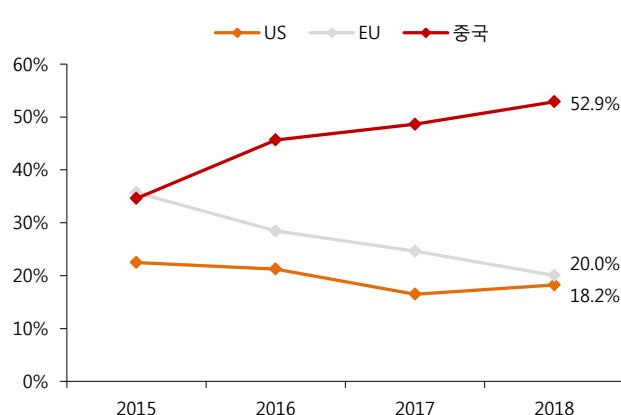
▶ 세계 전기차 판매는 해도 뜨겁게 진행되며 사상처음 신차판매의 3% 돌파. 다만 판매의 절반은 中이었음. 이에 대해 中 정부 판매전략 칭찬할 수도 있지만, 동시에 세계흐름에 기술적으로 뒤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 가능

판매량 / 침투율 모두 사상최대 지속 중인 전기차 시장



자료 : EVsales, SK증권

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절반을 넘어선 중국



자료 : EVsales, InsideEV, SK증권

- Tesla와 LG화학의 주가에서도 확인되지만, 2018년 역시 전기차 시장은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. 데이터 간략히 살펴보죠
- 일단 11월 전기차 판매량은 23.8만대로 집계되었습니다. (11월 누적 171.5만대) 당연히 사상 최대치고 YoY로도 +68.4%입니다
- 글로벌 신차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9월에 3%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는데(3.04%), 보조금 특성 상 12월에는 4%에도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간으로는 3% 수준이겠죠
- 차종으로는 11월 누적 기준 Tesla Model 3가 12.1만대로서 1위를 기록했고, 2위는 Nissan LEAF(8.3만대), 3위는 베이징기차 EC시리즈(8.2만대), 4위는 Tesla Model S(4.3만대) 순이었네요
- 결국 올 해는 기존 BEV시장의 강자인 Tesla와 Nissan의 Model 3와 new LEAF라는 신형모델의 인기가 큰 뜸을 했다고 요약됩니다

- 다만 2018년을 정리하면서 중국을 안 짚을 수는 없겠네요
- 그들은 11월 누적 기준 90.7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해 전 세계 판매량의 52.9%를 차지했습니다.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
- 다만 이전부터 문제가 지적되었듯, 지나친 국수주의로 중국에선 중국 전기차만 판매됩니다. 1위~20위 모조리 중국 브랜드입니다. 당연히 해외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거의 판매되지도 않고 있구요
- 이러한 중국에 대해선 2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. 첫째로는 일단 규제든 뭐든 전기차를 팔리게 하는 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죠
- 다만 일반적으로 리튬인산철, 리튬이온각형으로 제작되는 중국 전기차는 spec 측면에서 美/日/유럽에 크게 뒤질 수 밖에 없는데요
-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또는 IoT에 기반하지 않는 현재의 중국 전기차가 이런 주먹구구식 혹은 갈라파고스식 밀어붙이기로 궁극적인 스마트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입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